

01_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존재에 대한 궁금증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봅니다. 또,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흔히들 안정적인 직장이나 물질적 풍요, 권력이나 명예를 열심히 쫓지만 뭔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존재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걸까요? 나아가 창조주의 존재나 진리와 아름다움, 믿음, 희망, 사랑 같은 것을 갈망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니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지닌 존재로서 우리는 필요한 많은 것을 찾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니 의식주를 찾고, 의식주를 해결하려니 돈을 찾고, 돈을 잘 벌려니 능력과 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하고,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불만도 쌓입니다. 어떨 때는 삶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살아가면서 잠시나마 만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이긴 해도 충만함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았을 때, 누군가와 깊은 사랑의 일치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순간이 언제나 짧게 끝나고 맙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원히 행복하고, 오래도록 멈추지 않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충만함’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자꾸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에 대한 갈망

그런데, 잠깐! 도대체 이 갈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내가 만든 것일까요? 누가 심어놓은 것일까요? 왜 우리는 순간적인 즐거움을 쫓으면서도 영원한 행복에 목말라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가톨릭교회는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을 향한 갈망’ 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원한 충만함’ 에 대한 갈망은 곧 ‘하느님을 향한 갈망’ 이고, 그 갈망은 또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깊이’ 새겨놓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가톨릭교회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영원한 충만함’ 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하! 그랬었구나! 이제야 뭔가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영원한 충만함’ 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있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며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 마음 속 깊이 새겨두시고, 이를 통해 계속 이끌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또 그 ‘영원한 충만함’ 을 우리 안에서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나 애타게 찾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 즉 ‘영원한 충만함’ 을 오직 당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께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갈망으로, 달리 말하면 ‘영원한 충만함’ 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서 보라고, 이제는 알아채라고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02_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의 모임

교회! 여러분은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십자가? 성당? 성당에 모인 사람들? 교황님? 기도? 네? 개신교회요? 하하... 네! 우리가 자주, 또 쉽게 만나는 교회의 여러 모습들입니다. 크게 보면 모두가 교회라는 말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그리스어 성경에서 한데 모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의미하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자신을 에클레시아라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집회”라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즉, 교회는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이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 신자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는 흔히 내가 하느님께 오게 된 것은 순전히 나의 판단,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느님 곁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아주 작은 사건이나 말 한마디를 통해서든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경로는 예측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왜? 또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데는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창조 사업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또 친교와 사랑을 나누시고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 닮은 모습으로 당신 손수 빚으시고 당신 숨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입니다.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느님과 같아질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느님을 저버렸으며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는 없었던 죽음의 불안과 육신의 고통이라는 죄의 굴레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으셨습니다. 다시 당신의 영원한 생명, 당신과의 친교와 사랑으로 이끄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참사람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도 함께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당신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희생 제사로 열리게 된 구원의 길이 땅끝까지 또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펼쳐지기를 바라시며 사도 베드로를 시작으로 열두 사도를 뽑아 당신의 희생 제사와 구원 사업이 계속될 제도, 바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미리 약속하셨던 보호자이자 인도자이신 성령께서 내리심으로써 세상에 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느님 나라, 즉, 우리를 당신과의 친교와 사랑,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시작하신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신비체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모든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주교님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안내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자리 잡으면서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미사에 참례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찬미드리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그분과 하나 됩니다. 또한 기도로 하느님과 만나며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또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모든 사람과 친교를 이루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께서 머물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궁전입니다.

교회는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의 전례를 거행하기에 ‘하나이고’ 비록 부족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거룩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에 ‘거룩하고’ 모든 시대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려있기에 ‘보편되며’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기에 ‘사도로부터 내려온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교회의 지체이며 각자 하나의 교회이기에 하느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교회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그칩니다.”

03_한국 천주교회

한국 천주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조선에 한문 천주교 서적이 전래된 이후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연구하던 모임이 시작됐는데요.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왔을 때부터 본격적인 신자 공동체가 시작됐습니다. 이승훈은 귀국하여 이벽을 비롯해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고, 지금의 명동 성당 부근의 명례방에서 정기적인 신앙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천주교가 들어올 당시 조선 시대는 유교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유교 사상에 회의를 품는다는 건 자칫 자신과 가족이 사회적으로 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학과 학자들은 중국을 통해 전래된 서적으로 접하게 된 새로운 종교, 천주교의 가르침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유와 평등 사상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행적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과 평등과 자유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이며 자매라는 가르침은 양반과 천민, 남자와 여자라는 엄격한 신분 차별이 있던 사회에서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천주교회의 성장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배층은 천주교를 기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협 세력으로 판단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부모도 나랏님도 모르는 대역무도의 무리, 사화죄인으로 몰아 모진 박해를 가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100여 년 동안 네 번에 걸친 커다란 박해(신유·기해·병오·병인)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선교사 영입과 성직자 배출을 위하여 힘쓰던 당시 조선 천주교회는 1845년 김대건 안드레아가 중국 상하이 진자샹 성당에서 페레올(Ferrol, 1808~1853) 주교에게 사제품을 받음으로써 최초의 조선인 사제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대건 신부는

귀국하여 일 년도 채 안 된 이듬해 체포되어 순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모진 박해에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배교하겠다.”는 한 마디면 단란했던 가정, 잃었던 명예와 가산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많은 순교자 가운데 103명은 1984년에 시성돼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의 공경을 받게 됐고, 124명은 2014년 시복돼 한국 신자들의 공경을 받게 됐으며, 또 다른 순교자와 증거자의 시복 시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

오늘날에도 한국 천주교회는 이런 모습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복음 선교 활동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회 복지 활동,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의 실현, 인권 증진, 그리고 생명과 환경 보호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하고 남북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 형제들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일하게 평신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보존하는 일에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은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에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04_십자 성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호경은 가장 짧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크고 작은 일상사에서 기도의 시작과 끝에 성호경을 바칩니다. 눈 떠서 잘 때까지 성호경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성호경은 ‘십자 성호’를 그으며 드리는 기도로 ‘성호’는 ‘거룩한 표지’라는 뜻입니다. 성호경은 먼저 왼손을 가슴에 댄 채 오른 손가락을 편 상태로 내 몸에 십자 모양의 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마에서 ‘성부와’, 가슴에서 ‘성자와’,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가면서 ‘성령의’, 그리고 두 손을 모으며 ‘이름으로. 아멘.’ 이라고 합니다.

십자 성호의 구분

십자 성호는 큰 십자 성호와 작은 십자 성호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방금 설명 드린 십자 성호는 큰 십자 성호입니다. 작은 십자 성호는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작은 십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미사에서는 이 두 종류의 십자 성호를 다 사용하는데요. 미사의 시작과 끝에 그리고 기도할 때는 ‘큰 십자 성호’를 긋고, 미사 중 복음을 듣기 전에는 ‘작은 십자 성호’를 긋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머리와 입과 가슴에 새겨 잘 따르고 실행하겠다는 다짐으로 작은 십자 성호를 세 번 긋는 것입니다.

성호경의 세 가지 뜻

성호경은 크게 세 가지의 뜻을 지닙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 본체로서 세 위격이신 하느님을 그대로 믿겠다는 고백이며 모든 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호경은 악마로부터 구해지는 것이면서 구원이자 하느님 자비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호경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성호경은 짧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해주는 준성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호를 긋는 것은 나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호경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축복,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가 가톨릭 신자임을 드러내는 신앙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호경은 가장 짧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호경의 유래

그런데 성호는 언제부터 긋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십자가의 형상을 죽음의 형틀이 아닌 구원의 상징으로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예식에 들어온 것은 2세기경입니다. 세례 때 예비신자 이마에 주례자가 십자 표시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제국 박해시기 때는 남모르게 이마나 가슴에 간단한 십자 표시를 하는 습관이 신자들 사이에서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됐고 전례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4-5세기부터는 사제가 오른손으로 사람이나 사물에 십자를 그어 축복하는 관습이 생겼고 두 어깨를 연결해 크게 긋는 큰 십자 성호는 11세기부터,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하는 작은 십자 성호는 12세기부터 전례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도 박해시기에 십자 성호를 암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위장해 다니는 가운데 오직 성호를 긋는 표시로 흩어진 신자들을 찾아 모았고, 깊은 산골에서 웅기장으로 살아가던 신자들은 웅기 바닥이나 뚜껑에 십자 문양을 새겨 건네주며 서로를 알아보고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또 박해시기에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왔던 한국 교회의 네 번째 교구장 베르뇌(1814~1866, 장경일) 주교는 십자 성호와 관련해 이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손을 하늘로 올리고 십자 성호를 계속 그으며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응답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신자였습니다.” 옛 신앙 선조들은 십자 성호 하나만 제대로 그어도 천국에 간다며 정성을 다해 성호경을 바치셨습니다.

날마다 성호를 긋는 것은 내 몸 위에 십자가를 새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호를 그으며 나는 언제나 하느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가슴으로 예수님을 안는 것입니다.

05_성경

신앙생활에 성경은 왜 중요할까요? 성경 안에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느님의 말씀도 있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구약시대부터 기다려 온 메시아이시고, 신약시대로 와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보이셨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 읽기는 필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다들 성경 말씀과 열심히 만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성경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성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책으로 다가옵니다. 좀 두꺼운데요,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요? 총 73권으로 구성된 성경은 크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뉩니다. 구약성경은 총 46권으로 예수님 탄생 이전까지의 기록입니다. 신약성경은 총 27권으로 그리스도 탄생 이후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구약은 하느님의 옛 계약을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계약인데요, 메시아를 보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계약입니다.

다음으로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신 하느님의 새로운 계약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개로 모든 인류와 맺으신 계약으로, 구약의 완성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구약성경은 모세오경과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로 구성됩니다. 창세기를 필두로 다섯 권으로 이루어진 모세오경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에 관한 기록이고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과의 계약에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또, 시편과 잠언 등으로 이루어진 시서와 지혜서는 하느님께 충실했던 인물들의 모범과 찬양, 지혜의 가르침에 관한 기록이고 예언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전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한편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완성된 하느님의 구원 사업과 교회의 시작에 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네 복음서와 예수님의 승천 후 교회의 탄생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간들과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희망을 담은 요한 묵시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복음서는 마태오, 마르코, 루카, 그리고 요한 복음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성경 안에서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을 밝혀주고,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느님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성령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하느님의 인도에 따라 기록됐지만 1000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 쓰였고 성경을 쓴 저자들이 살았던 시대와 관습과 언어의 영향을 받아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이 어떤 시대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기록됐는지를 알면 더욱 좋습니다. 더불어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도움을 청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신 분이 성령이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역시 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오해 없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참으로 하느님과 함께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입니다. 또 우리 삶의 바탕이 되는 모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06_삼위일체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되는 신비! 가톨릭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는 신비! 이 신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 어려우시다고요?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둥근 원체로 있는데요. 거기서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둥근 원체일까요? 빛일까요? 열일까요? 셋 다 하나의 태양 아닐까요? 둥근 원체에서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듯이, 빛이 열도 내고 둥근 원체를 이루며 열이 빛을 내고 또 둥근 원체를 만드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태양은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우리 가톨릭교회에서는 하느님께서 하나이면서도 셋이시고, 셋이면서도 하나이시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오늘은 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느님께서 왜 하나이고 셋이시며, 셋이면서도 하나이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당신을 위해서였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였을까요?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분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삼위일체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우리” 라고 표현하거나 “말씀”, “영”, “지혜” 라는 말로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신약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예수님의 탄

생을 예고하면서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루카 1,35)라고 삼위의 신비를 표현했으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루카 3,21-22)라고 전하면서, 삼위께서 동시에 현존하시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실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 28,19)라고 말씀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온 삼위일체 믿음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은 사도들의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믿을 교리’로 선포됐습니다. 그 ‘믿을 교리’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실제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동일한 본성을 지니시고, 한 본체를 이루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세상에 보내진 성부의 아들로써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어 교회 안에서 머무르시며, 우리를 성화시키고 사랑으로 일치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자 고유한 활동을 하시되, 각각의 활동에 다른 두 위격이 함께 현존하고 함께 작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삼위일체의 신비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가르칩니다. 또 전례 예식을 비롯해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앙 행위의 기본인 십자 성호에서부터 영광송, 그리고 사도신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도문에 드러나고 있으며 세례성사를 위시한 모든 성사 생활에서 표현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강림대축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대축일로 기념하며, 삼위일체 하느님의 인류 구원 활동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삼위이신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친교와 일치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서로 친교를 이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는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길 역시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 이르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오시는 하느님은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배려입니다. 우리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싶으신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이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07_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가톨릭 신앙인이면 가장 많이 부르고 찾는 분입니다. 또 가톨릭 신앙인이면 뜨겁게 혹은 따뜻하게 가슴에 새기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이름의 뜻과 출생의 신비

먼저 이름으로 보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히브리어로 ‘예수’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또 ‘기름부음받은이’,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파견하신 성령으로 기름부음받은이,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출생의 신비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때가 되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낳아줄 여인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루카 1,31) 이에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이 동의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곧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을 ‘강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하느님이시면서도 참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강생’은 신비입니다.

성장과 활동

다음은 성장과 활동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 서른 살쯤부터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지방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병을 치유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보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정직하고 의롭게 살며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을 닮아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기도와 자선과 단식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수난과 부활, 승천

다음으로는 그분의 수난과 부활입니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다.” (요한 19,30)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죽음에 맞서 싸우셨고, 죽음을 마침내 이겨내심으로써 하느님 계로 향하는 빛의 길,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분의 ‘승천’입니다.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예고하신 대로 승천하셔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오신 분이 아버지께 다시 가심으로써 우리 역시 희망을 갖고 뒤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심판

마지막으로 그분의 심판입니다.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때는 감춰진 비밀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각자 행한 바대로, 또 그분의 은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한 것에 따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수난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 주실 분.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 6,35)

08_성령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 뵈올 수 있을까요?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 중에 어느 위격의 하느님과 가장 가까울까요?

성경을 통해 성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은 어느 정도 만나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따르지는 못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느님을 생각하면 어떤 분이실지 약간은 어렵습니다. 딱히 말씀이 많으신 것 같지도 않고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데 꼭꼭 숨어 계신지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럼에도 가까이, 아주 가까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느님, 성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느님의 영입니다. 마치 바람과도 같아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과 물, 불꽃의 모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구름과 빛, 비둘기의 모양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무르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

성경에서 우리는 극적인 순간에 함께하시는 성령을 만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을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은 또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하느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수난 전에 제자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요한 14,17)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요한 14,26)

그리고 부활하신 뒤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당신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 20,22) 성령과 함께 제자들을 파견하신 이때부터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21)

성령의 7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

그리고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호자’가 되셨듯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늘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인 삼위일체의 생명, 새로운 생명의 은총을 부어주심으로써 지혜, 통찰, 식견, 지식, 용기, 공경, 경외(성령 칠은)를 통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느님 은총의 선물을 통해 우리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거행하는 모든 성사의 효력을 보장해주시고, 진리를 믿거나 가르치는 데 그르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와 교회 안에 머무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이끌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진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례와 기도,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몸과 마음을 모아 가만히 그 안에 잠기다 보면 나를 한시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시며 나에게 끊임없이 용서와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그분을 분명히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꼭꼭 숨어 있는 쪽은 성령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였는지 모르니까요.

자, 이제 잠시 우리의 모든 순간과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성령 하느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아멘.”

09_성모 마리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성당을 가더라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성모상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자 가정에도 예외 없이 성모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다른 종교 신자들은 가톨릭교회를 마리아를 믿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성모님을 믿는 종교일까요?

성모님 흠숭이 아닌 공경

가톨릭교회는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을 엄격히 구별합니다. 가톨릭교회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고 기르신 분으로서 하느님 뜻에 온전히 순명하시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길, 곧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모님은 하느님의 인류 구원 사업의 협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머무셨고, 성령 강림의 순간에도 사도들과 함께하시며 교회의 시작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오늘날에도 예수님 곁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빌어 주시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청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가톨릭교회는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합니다. 또 하느님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축일들을 지내고 묵주기도와 같은 기도를 통해 특별히 공경하고 전구를 비는 것입니다.

성모님에 대한 네 가지 교리

그런 성모님에 대해 가톨릭교회는 네 가지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스스로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데 특별히 협조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교회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르는 것은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사실에서 비롯하며,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분입니다.

천사는 성모님께 예수님의 잉태를 예고하면서 “은총이 가득한 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모님 역시 잉태되신 순간부터 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모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하느님의 아들을 낳고 그분과 일치하며 하느님의 구원 활동에 협력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모님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셨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는 그 순간에도, 또 그 후에도 동정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의 형제들” 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하여 성모님의 평생 동정을 반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당시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을 일컫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동정은 예수님께서 오로지 성령의 힘으로 잉태되셨음을 나타내고 이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징표입니다.

넷째, 성모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지상 생활을 마치고 하늘에 계신 아드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몸과 영혼 그대로 지니고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성모님은 죄에 물든 일이 없으셨기에 무덤에 계시면서 죄가 세상에 가져온 죽음의 지배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도 성모님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희망의 표지입니다.

또, 모든 성인들 중의 으뜸이신 성모님은 하느님을 향한 신앙 여정을 모범적으로 살아
가신 분으로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
십니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10_교회의 구성원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부제, 수녀, 수사, 평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단어들입니다. 많이 들어 알 만한 것도 있지만 가끔 들어 낯선 것도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에게 붙여 부르는데요. 신분을 말하는지 직분을 말하는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합니다. 모두가 하느님 백성이고, 모두가 그리스도교 신자인 가톨릭교회 안에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언뜻 보면 좀 많고 복잡해 보이는데요. 알고 보면 간단하고 그리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교인의 분류

하느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교인들은 하는 일에 따라 크게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로 나뉩니다.

성직자는 교회 안에서 성사 집전 등 거룩한 교역을 맡은 사람들인데요, 서품을 통해 품계를 받은 사람들로 주교, 신부, 부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를 ‘교계’ 라고도 하는데요. 기원은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까지 지속될 교회를 세우시며 사도들에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화하고, 다스리는 특별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하신 데 있습니다.

성직자 중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로 지역교회, 곧 교구를 관할하고 일치의 중심이 됩니다. 주교는 또, 견진성사의 통상적인 집전자이며 성품성사의 수여자입니다. 신자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주교가 자신이 맡은 지역을 혼자 사목했습니다. 이후 신자 수가 늘어나고 사목 지역도 넓어지면서 협력자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협력자가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는 주교에게서 본당 공동체의 직무나 일정한 교회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미사를 거행하고 성사를 집전하며 교리를 가르치고 본당 공동체를 이끌고 봉사합니다. 또한 노약하고 나약한 이들, 병자들, 임종자들을 보살피며, 가난한 이

들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다음으로 부제는 전례와 사목, 그리고 사랑의 자선 행위를 통해 교회에 봉사하는 직무를 위해 서품된 사람들로 전례 거행에서 주교나 신부를 보좌합니다.

교황과 추기경, 수도자, 평신도

그럼 교황과 추기경, 수도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까요? 교황과 추기경은 모두 주교단에 속합니다. 특히 교황은 주교단의 단장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들 중에 으뜸이었듯이 교황 역시 모든 주교들의 으뜸인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 라는 당부를 남기셨듯이, 교황의 임무 또한 모든 신자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가톨릭교회의 최고의 목자이자 스승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들을 하느님의 도움 안에 교리로 선언하고, 자신에게 협력할 주교와 추기경을 지명하며, 우리가 공경할 분들을 성인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전례 양식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변경, 폐지할 수 있으며 공의회를 소집해 주재하고 폐회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바티칸시국의 국가원수로서 다른 나라 대표들을 만나고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이 비취길 수 있도록 말과 행동으로 활동합니다.

한편 추기경은 그런 교황을 보필하며 자문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 추기경 회의를 통해,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교황청 부서장, 교황 특사, 교구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교황을 보필합니다. 그리고 80세 이하의 추기경은 교황을 선출하는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수도자는 복음적 권고에 따라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며 자신의 뜻과 의지를 하느님께 바치는 3대 서원을 통해 자신을 오로지 하느님께 봉헌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신도는 성직자와 수도자가 아닌 모든 신자를 말합니다. 교회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교회와 세상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평신도는 곧, 직업을 갖고 가정을 이루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와 세상 안에서 복음화 사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의 ‘하느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봉사 직무가 있지만, 그 사명은 하나” 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직자는 성직자대로 신자들에게 봉사하고, 수도자는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며, 평신도는 성직자들과 협력하여 자신이 받은 은총과 봉사와 활동으로 예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가는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각자의 위치에서 인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여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 참여하고, 하느님을 흠숭하고 자신과 세상을 거룩하게 하여 사제직에 참여하고, 세상 만사가 하느님의 뜻에 맞도록 노력하여 그분의 왕직에 참여합니다.”

11_평신도

“한국 땅에 닿게 된 그리스도교 신앙은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민족,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평신도 소명의 중요성, 그 존엄함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14년 8월 16일 124위 시복 미사 강론 중)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국 가톨릭교회는 세계 교회에서 유일하게 ‘평신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선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의 진리를 찾아 나섰고, 사제를 모셔와 탄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공동체를 스스로 꾸려갔습니다. 그런 평신도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의 후예로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어떤 평신도상을 세워나가고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는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평신도란 성직자와 수도자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또 성직자와 수도자와 같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입니다. 교회란 ‘하느님의 백성’, 곧 신자들의 모임으로써 신자들은 모두 세례성사로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표지인 인호를 받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협력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실천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 따라 역할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는 교회 안에서 성사를 집전하고, 수도자는 수도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봉헌 생활을 하며, 평신도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증언합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가정과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평신도는 자기의 소명에 따라 사회 안에서 현세의 일을 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협력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참여란 성체분배나 교리교사와 같은 교회 직무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복음의 빛이 비취지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교회의 가르침과 복음적인 방법 안에서 세상의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신도는 이를 세례를 통해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명, 곧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을 통해 이룹니다.

평신도의 세 가지 소명

먼저 평신도의 사제직 소명이란 현세에서의 삶 그 자체가 하느님께 바치는 영적 예물이자 제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을 봉헌하셨듯이 평신도는 자기 자신과 일상생활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가정생활, 일상의 노동과 휴식 등은 물론 삶의 기쁨과 괴로움까지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제물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평신도의 예언자직 소명이란 말과 행동으로써 복음을 선포하고 주저하지 않고 용기있게 죄악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직 소명은 현세를 살아가면서 하느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영적 투쟁에서부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평신도는 생활 전반을 영적 제물로 봉헌하며,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평신도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축인 기도와 활동은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것을 또 세상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모든 것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알아보고,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의 소명이자 평신도들의 존엄성은 세례를 통해 주어지고 견진으로 굳건해지며 성체성사의 영적 양식을 통해 길러집니다. 또한,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향주덕을 통해 세상 안에서 맡아야 할 사명을 올바로 수행할 힘을 얻습니다.

“모든 평신도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세상 어디에서나 더욱 널리 가 닿도록 노력하여야 할 빛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교회 헌장」 33항)

“오 그리스도인이여, 그대의 존엄성을 깨달으십시오!” 아멘.

12_전례

우리는 성당에서 전례에 참석합니다. 매주 미사를 봉헌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종종 세례식, 혼인식, 서품식에 참석하며, 어떤 사람들은 시간 전례인 성무일도를 바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아니, 사실은 자주 전례를 의무처럼 받아들이고, 전례 안에서 수동적으로 머무르고, 전례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구경하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늘 하다 보니 처음의 감동과 설렘이 무뎌져서도 그렇고, 해야 한다고 해서 하다 보니 다른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도 그렇고, 잘 모르고 하다 보니 딱히 의미를 못 찾아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례는 왜 하는 것이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누가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에 임하는 자세가 사뭇 달라진다고 하네요.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전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례의 의미

전례란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 그리스도의 파스카의 신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신비인데요. 그 신비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례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전례를 통해 우리를 그 신비로 초대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전례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고요?

그건 당연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공동체를, 이 세상 모두를 말합니다. 또한 전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부께서는 전례 안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전례를 통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께서는 전례 안에 현존하시며 파스카 신비를 나타내고 실현하시면서 우리의 참여를 격려하고 이끄십니다. 성령께서는 전례 안에서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뤄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례 거행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파스카 신비의 은총을 충만히 받습니다.

전례는 누가 거행할까

그럼 전례는 누가 거행할까요? 전례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 전체가 거행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특별한 방법으로, 각자의 소명에 따라 세례 때 받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즉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협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례는 교회 전체가 거행하는 공동체적 예식입니다.

다만 특별히 전례에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아 성품성사로 축성된 주교, 사제, 부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직자와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례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직자 홀로 집전하고 우리는 다만 지켜보기 위해 전례에 참석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소홀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전례 거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사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일상적으로 참여해왔던 전례가 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부디 전례의 은총 속에 기쁨으로 충만한 삶,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흐뭇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13_미사1-미사의 의미

서울 남대문시장 4번 출입구 옆 한 건물. 이곳에 입점해 있는 곳은 남대문시장 가게가 아니라 바로 ‘남대문시장성당’입니다. 남대문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 상가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곧이어 시작될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를 앞두고 조금씩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남대문시장성당 신자 상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미사 시간을 앞뒀는지 조금씩 일을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드디어 출발! 옷을 갈아입고 좁은 판매대를 넘어 발걸음을 총총히 옮깁니다. 미사가 무엇이길래 이 분들은 이렇게 일손을 멈추고 한달음으로 성당으로 향하는 걸까요? “위로와 힘을 주시죠.”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나오는 것도 좋고요. 또 교우들 보고 싶으니까.” “오랫동안 냉담했다가 다시 이제 하느님 품 안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좋아요.” “엄마하고 아기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그 줄을 잡고 있는 그런...”

미사 시간 20분 전, 삼삼오오 성당을 찾는 신자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입니다. 일할 때 수시로 만나야 하는 스트레스 대신 언제나 ‘어서 오라’고,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미사 시작! 남대문시장 성당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당신의 살과 피는, 또 말씀은 이곳 신자들의 몸과 피와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미사는 무엇인가

미사! 여러분에겐 미사는 무엇입니까? 미사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매 주일 미사를 드리러 가는 걸까요? 미사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1코린 11,24)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1코린 11,25)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미사는 바로 이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을 기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함께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참되고 의미 있음을 보증해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미사 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린양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듯이,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 역시 새 계약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미사성제를 통해서 이 구원의 위대한 사건을 새롭게 재현합니다.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미사를 감사제라고 부릅니다. 나아가 미사 때에 우리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살아 계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영적 양식으로 받아먹고 마십니다. 이것은 미사가 제사만이 아니라 잔치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룹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이웃과 나눌 것을 새기고 다짐합니다. 따라서 미사는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파스카 사건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미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잔과 빵을 들고 삶에 지치고, 타인에 지치고, 자신에게 지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로와 격려의 손짓으로...

자비와 사랑의 눈빛으로...

그래서 미사는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얻는 기쁨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14_미사2-미사의 구조

그리스도인은 미사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영혼의 양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미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봉헌합니다. 매주 참례하는 미사,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미사는 크게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두 부분으로 이뤄집니다. 이 두 부분은 긴밀히 연결돼 하나의 단일한 예배 행위를 이룹니다. 그리고 말씀 전례에 앞서 시작 예식이, 성찬 전례 후에는 마침 예식이 있습니다.

시작 예식은 입당, 인사, 참회, 자비송, 대영광송, 본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한데 모인 교우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합당하게 성찬례를 거행할 준비를 갖추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례

말씀 전례는 독서와 복음, 화답송과 복음 환호송, 강론, 신앙 고백, 그리고 보편지향기도로 이뤄집니다. 말씀 전례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해방과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시며 영육의 양식을 주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을 통해 백성들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교우들은 침묵과 노래로 하느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신앙 고백으로 자신을 말씀에 일치시킵니다. 또 이렇게 양식을 얻은 백성은 보편 지향 기도를 통해 거룩한 교회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찬 전례

다음으로는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제가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당신을 기억하여 행하도록 제자들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물과 함께 제대로 운반되고, 이제 미사 전례의 절정의 순간, 감사 기도가 시작됩니다. 감사 기도는 감사송에서 표현되는 감사와 감사송 끝에 환호하는 “거룩하시도다.”, 곧이어 성령 청원과, 성찬 제정과 축성문, 다음으로 기념과 봉헌, 그리고 전구, 마지막으로 마침 영광송으로 이뤄집니다. 이 중 성령 청원은 미사에 봉헌된 예물인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느님의 능력을 청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어 ‘성찬 제정 축성문’을 바침으로써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와 성혈이 됩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로써 단순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가 되어 우리의 영적 음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신비를 영구히 거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에 사제와 교우들은 환호합니다.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다음으로 ‘기념과 봉헌’에서는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께 받은 명령을 이행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어 그 자리에 모인 교회를 성령 안에서 깨끗한 제물로 아버지께 봉헌합니다. 예수님의 봉헌이 우리의 봉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행한 우리 모두의 봉헌이 교회를 위하고, 또 그의 모든 지체인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행해질 수 있도록 전구합니다. 그리고 ‘마침 영광송’ . ‘아멘’입니다.

다음으로 미사는 친교와 나눔의 파스카 잔치로 들어갑니다.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에 앞서 주님의 기도로 주님께 양식을 청하고 우리 죄의 정화를 간청합니다. 또 평화의 인사로 우리 모두의 평화와 일치를 구하고 서로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영성체.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생명의 빵을 함께 나눔으로써 모두가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침 예식에서 사제는 교우들에게 강복을 주고 세상으로 다시 파견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터로 돌아가 주님을 찬미하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가운데 복음 선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서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5_전례주년

대림, 성탄, 사순, 성주간, 부활, 연중...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들 여러 번씩 들어보셨을 말인데요. 이런 것을 통틀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전례 주년. 일 년이라는 시간 안에 펼쳐놓은 거룩한 전례의 주기, 혹은 시간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느님의 거룩한 구원 사업을 1년이라는 인간의 시간 안에서 만나고,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이라는 인간의 시간으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기념하는 전례 주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대림 시기를 시작으로 일 년 주기로 이뤄져

전례 주년은 언제나 주님 성탄 대축일과 주님 부활 대축일을 큰 축으로 하여 이뤄집니다. 그리고 주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대림 시기는 인류 구원을 위한 구세주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4주간의 대림 시기를 지내고 나면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을 맞는데요. 이날은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어 주님 공현 대축일과 주님 세례 축일을 지내고 나면 교회는 연중시기로 들어갑니다. 이 기간에는 그리스도 신비의 특별한 부분을 경축하지 않고, 주일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신비 전체를 기념하고 묵상합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은 12월 25일로 정해져 있지만 주님 부활 대축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달라지는데요, 거기에는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곧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주일을 주님 부활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 대축일 날짜가 정해지면 그 이전의 40일을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수난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속죄하는 기간인 사순시기로 지냅니다.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성주간으로 마치는데요. 주님의 수난과 돌아가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주간에 파스카 성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는 성체성사의 제정을 기념하고,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성토요일에는 주님의 무덤 옆에 머무르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이 되살아나신 최고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날을 성령 강림 대축일로 지내면서 그 사이 기간을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부활 시기로 지냅니다. 성령강림과 함께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순례 여정을 가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처럼 전례 주년은 대림 시기를 시작으로 성탄과 사순과 부활을 거쳐 연중시기에 이르기까지 1년을 주기로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1년을 주기로 전례 주년을 지내는 것은 단지 하느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이룩하신 놀라운 구원을 경축하고 기념하는 데만 있지는 않습니다.

전례력, 곧 교회 달력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되새겨주며 하느님 자녀로서 보다 충실히 살아갈 것을 일깨워주는 신앙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례 주년에 맞춰 성당의 장식과 사제의 제의 색깔이 바뀌고, 전례의 경문도 변하며, 성경 독서도 가해, 나해, 다해로 돌아가면서 달라집니다.

대축일, 축일, 기념일 그리고 성월

또한 전례 주년, 달리 말해 전례력, 곧 교회 달력은 오래전부터 작은 부활 축일로 여겨온 주일은 물론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념하는데요. 그 중요도에 따라 대축일, 축일, 기념일로 구분하고 미사와 시간 전례로써 거룩하게 지냅니다.

축일 중에는 특별히 모든 신자가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 축일이 있는데요. 지역 교회 사정에 따라 그 수를 조정할 순 있지만, 한국 교회는 현재 모든 주일과 함께 주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을 의무 축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례 주년에 따라서는 신자들이 특별히 지키고 실천해야 할 것들도 있는데요. 예컨대 사순시기의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금식을 해야 하고, 일 년에 적어도 한 번 부활 시기에는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 그밖에 일 년 중 특정 달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또는 성인께 봉헌하고 특별한 전구와 은혜를 청하며 기도하고 신심 행사를 갖는 ‘성월’도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정한 성월로는 3월 성 요셉 성월, 5월 성모 성월, 6월 예수 성심 성월, 9월 순교자 성월, 10월 묵주기도 성월, 11월 위령 성월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교회가 정한 전례 주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업, 즉 하느님의 일을 기억하고 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각각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보낸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맛과 감동은 더욱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